

소아예방접종 중단하는 보건소...아이 키우기 불안한 전남

화순 중단 이어 목포·여수 민간 위탁 검토...지역 지자체 비슷한 상황
소아전문의 없고 공중보건의 크게 줄어...응급상황 발생 부담에 기피
소아청소년과 없는 읍·면 접종 공백 불가피...인근 도시 이동 등 불편

전남지역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이 소아 예방접종을 맡기를 꺼리면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군보건소는 지난 5일부터 1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했다.
화순군보건소는 그동안 접종을 맡아온 공보의가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며 접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프라가 없는 보건소 구조상 쇼크 등 이상반응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데다, 후속 조치를 위해 이송할 2차 병원이 인근에 없다는 점도 지역 공보의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화순보건소는 공보의 거부 입장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유권 해석을 의뢰, '전문영역이 아닌 경우 거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민간에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

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에 부족한 경우'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화순보건소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나 광주 지역 의료기관으로 접종 희망자를 유도하고 있다.
화순군은 또 향후 이뤄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의료기관 위탁 시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소아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키로 했다.
화순군 보건소 관계자는 "소아예방접종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 뿐 아니라 전남의 다른 시·군 보건소도 비슷한 형편이다.
여주시보건소도 소아대상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접

종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수보건소 내 공보의도 화순과 같은 비소아과 전공자 1명 뿐이지만 접종 업무를 그대로 맡기로 했다.
목포시보건소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소아 예방접종을 민간 위탁 체계로 전환한 상태로, 12세 이하 소아 접종은 관내 34개 위탁 의료기관으로 넘겼다.
전남지역 공보의 대부분이 소아과 전공이 아닌데다, 소아과조차 없는 군도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접종 공백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당장,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아 예방 접종을 위해 군에서 차로 몇 시간 걸리는 시 단위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저출생으로 시·군의 소아과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과 공중보건의 감소, 보건소의 구조적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열

악한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의 경우 올해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145명, 치과 107명, 한의과 177명 등 429명으로, 지난 2023년(534명), 2024년(487명) 등에 견줘 감소했다.
공보의 감소 문제는 최근 공보의 복무 기간(36개월)이 길고 수련 단절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복무 기간이 더 짧은 일반 현역병 복무를 선호하는 추세다. 시·군의 경우 공보의 한 명이 여러 읍·면을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는 만큼 진료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공보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보완할 지역의 사 확충과 국립의대 설립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금호타이어 화재 한달 넘어가는데...원인조사는 하세월

붕괴 위험 해체 없인 현장감식 못해
장맛비 내리면 증거 사라질 위기
경찰 발화지점 우선 해체 등 요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5월 17일)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여파로 공장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경찰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나, 현장 감식은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다. 소방청 또한 지난달 20일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꾸렸으나 현장 감식은 진척을 내지 못해 화재 원인 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공장 건물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한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해체 작업을 하려면 건축법상 관할구청인 광산구에 구조 안전성 검토, 폐기물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해체계획서 심의에는 통상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넘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광산구 설명이다. 계획서에 국토안전원에서 검토해야 할 해체공법이 포함됐을 경우 국토안전원의 안전성의를 받아야 하고, 아니라면 광산구 심의위원을

통해 검토를 받게 된다.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 고려할 점도 남아있다. 해체 과정에서 화재 발생 현장이 훼손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증거물이 손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발화 지점을 우선 해체하고, 해체와 동시에 감식을 진행하는 안을 반영해 줄 것 등을 광산구와 금호타이어 측에 요구하고 있다.
20일부터 장맛비가 내리면 현장이 씻겨나가 발화 원인을 특정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해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주 안으로 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해체계획서 승인이 나는 대로 이후 절차에 맞춰 수습 단계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취약계층에 '사랑의 과일 바구니' 광주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신용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과일바구니를 제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고용 보장·새공장 논의 촉구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사측에 노동자 고용 보장과 신공장 건설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금호타이어 현장관리자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1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노조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5월 17일 광주공장 화재 이후 2500



금호타이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노조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 노동자와 2만여 가족은 한순간에 생계의 벼랑 끝에서 있다"며 "사측은 뚜렷한 복구 계획도, 조합원 고용 보장에 대한 입장이 밝히지 않고 있다. 최

대 주주 더블스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지회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광주 1공장 재가동과 함평 빛그린산단 내 신공장 이전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며 "사측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노사 간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대 주주 더블스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출 등 비용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금호타이어 화재를 기업과 지방의 작은 현안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삶, 지역경제까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9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 피켓 선전전을 시작으로 요구안 반영 촉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